

6차산업화로 하나된 무주

군, 신규시책 발굴보고회 담당직원 발굴 185건 공유

무주군은 26일과 27일 정부 3.0에 기반을 둔 "6차 산업화로 하나된 무주" 실현을 위한 2017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무주군 16개 실과원소 직원들이 그간 발굴해 낸 185건의 신규 시책들을 공유할 예정으로, 민선 6기 5대 핵심과제인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하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함께 하는 공감행정 실현에 기반을 두고 발굴된 2017 무주 WTF 세계대관도선 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역 고유 자원과 생태환경을 부가시킬 수 있는 사업, 소규모 예산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삼락농정, 토탈관광과 관련한 사업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군 주요 시책으로는 △천마 R&D사업, △스마트관광 선점을 위한 모바일 관광 인프라 구축, △대관도 만남의 광장 조성,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시·군 공동대응, △산림힐링 명품



무주군은 27일 2017년도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가졌다.

단지 조성,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 추진, △농업용 드론 병충해 방제 시범사업, △무주 덕유산 병물 생산라인 구축,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 △청년 무료 건강검진 등이 눈에 띈다.

하성운 부군수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은 결국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시책발굴이 의

례적이 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시책들에 대해 부서별 추진 가능성과 예산 반영 여부 등의 세부 검토를 거쳐 2017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우렁이농법 지구 조성사업 확대 추진

내년도 친환경농업 분야 수요조사 실시

진안군은 26일 2017년도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농법 지구 조성사업을 군 전체 벼농사 농지(2,000ha)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친환경 유기질비료지, 친환경부지포 지, 고령농업인 육묘지원 사업 등 친환경농업 분야 주요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친환경농업분야의 보다

명확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함으로 지난 9월 초 11개 읍·면에 수요조사 계 획을 시달 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집계하여 2017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농법지구 조성, 친환경 유기질비료, 친환경자재 지원 등 18개 사업에 47억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우렁이농법 전 면적 추진을

위해 친환경농업분야 예산이 소폭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GAP, HACCP 등 안전성 개념의 인증과 혼동되어 친환경품질인증 면적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증의 주민 목적이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 도모 이므로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의식 개량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및 물품비를 줄일 수 있는 정부차원 대책 수립이 남은 과제"라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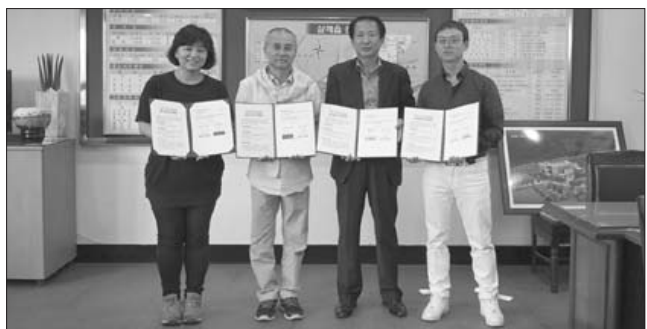
“어려운 이웃에 추어탕·천연발효빵 외식 기회를”

완주 삼례읍 - 지역외식업체 4곳, 업무협약 체결

완주군 삼례읍은 26일 지역외식업체 4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다자녀가정,

아동 등에게 다양한 외식 기회 제공에 나섰다.

이번 협약식에는 로씨니·와인지움



레스토랑(대표 박영민), 한씨네 추어탕(대표 한규현), 오스아트그룹(대표 전해갑), 돼지랑 한우랑(대표 김건석) 4곳 외식 업체와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현하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식업체들은 외식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에 분기 1회(아동 20여명) 외식, 매월(독거노인 40명) 추어탕, 매주(다둥이가족 5세대) 천연발효빵, 매월 돼지고기 3kg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창 삼례읍장은 "지역 외식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됐다"며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박형운 변호사 초청

장수군은 26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위법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공직자 및 일반 시민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박형운 법률사무소 한이를 대표변호사로부터 법의 제정취지,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 금품수수 금지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박 변호사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 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

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규정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중점 강의를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정청탁의 금지 규정 등이 들어가 있다.

한국회 기획조정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대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찰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 전국주부노래교실 가요제 예선 120여 명 참가

진안홍삼 전국주부노래교실 가요제 예선전이 지난 24일 오전 11시부터 산악초타운에서 진행되었다.

전국 주부노래교실 소속 33명의 예선 참가자와 응원팀, 소속 노래강사 등 120여명이 예선장에 참석해 주부노래교실 가요제의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작곡가 이재이, 영턱스클럽 박성현, 최승보 심사위원은 예선 참가자들의 가창력, 표현력, 무대매너를 심사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거쳐 본선진출자 12명을 선발하였다.

본선에 진출할 12명은 오는 10월 14일 북부미산 마이몬테마공원에서 최종 경연을 펼치게 되며, 대상 1팀 시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팀 200만원, 우수상 1팀 100만원, 장려상 1팀 50만원, 인기상 1팀 30만원, 특별상 1팀 20만원으로 총 9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완주군, 오늘부터 ‘북스타트 운동’ 진행

완주군 도서관의 영유아 대표 독서진흥사업인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북스타트 운동’이 27일부터 진행된다.

26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에서 출생한 생후 3~36개월 영유아와 양육자에게 그림책이 든 꾸러미를 무료로 나눠주고 발달단계에 맞춰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북스타트 운동을 매주 화요일 완주군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한다.

북스타트 운동은 2012년 완주군립중앙도서관 개관과 함께 시작한 사업으로 오감발달 책놀이 강좌, 부모교육,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등 그동안 관련 강좌를 120여 회 운영했고 2,8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완주군 북스타트 운동은 재료비와 참가비가 전액 무료이

며 5년 여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양성된 북스타트 강사진의 열정과 실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책 읽어 주세요’, 국민독서문화진흥회의 ‘내 생애 첫 책’ 공모사업과도 연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영철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북스타트 운동을 통해 아기를 키우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공동체 문화와 사회적 모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영유아 양육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 및 참여 신청은 완주군립 중앙도서관(290-2653)으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버섯재배 농가들이 버섯종균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교육을 받고 있다.

무주서 버섯 전문가 탄생

버섯종균기능사 실기시험 응시 13명 전원 합격

무주군은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된 버섯종균기능사(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실기 시험에서 응시생 13명이 전원 합격했다.

이들은 버섯재배 뿐만 아니라 종균 분리, 배양과 관련한 기술을 모두 습득해 앞으로 군이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하는데 든든한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 탄생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취지에서 군이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자격증 취득 교육이 기초가 됐으며, 종균배지 제조법과 배지 살균, 재배시설, 종균점종, 균사배양 등의 이론 교육을

받은 수강생 40명 중 필기시험(7월 시행)에 합격했던 13명이 그동안 한국농수산대학과 연구실에서 원균증식 배지 제조와 원균이식 방법 등에 관한 실습교육을 받고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정철 인력육성 담당은 “버섯재배 농업인이 증가를 하면서 버섯재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게 됐고 그것이 자격증 취득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군에서는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습득, 제대로 된 동기 부여, 그리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자격증 교육을 신설·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관광사진 공모전’ 81점 선정

진안군은 2016 진안관광사진 공모전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군은 전국사진동호인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찍은 진안의 아름다운 관광사진을 활용해 전국에 진안군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사진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미산, 구봉산, 백운동계곡, 운일안반일암 등 주요명소와 원연장 꽃잔디축제, 동향 수박축제 등 각종 축제, 지역특산품인 인삼밭, 홍삼 등을 테마로한 자유 작품을 공모분야로 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접수 받은 결과 총 435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3일 군청강당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접수 작품

에 대한 심사를 실시,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70점 등으로 총 81점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21일 전북예술회관 2층 차오름1실에서 수상자 81명(입상 11명, 입선 70명)을 초청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들은 10월 27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 전시된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전국에 진안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알려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관련 문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063-254-7111)에게 연락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회

장수군은 26일 오후 2시 장수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위원들은 백두대간 등산로 연계사업, 화장장 건립 등 분과위원회별 총 39건의 주민제안공모사업을 검토하고 사업 발굴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장수군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앞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설명회를 개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제안사업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일반행정, 산림농업, 사회문화, 환경건설 등 4개 분과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완주군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돈돈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5년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돈돈학자금(등록금),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자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잔액을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자 납부계좌에 지급된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완주군청 교육이동복지과(063-290-2274)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진장소방서, 트럭운전자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영주)는 지난 24일 오후 1시15분 경 무주군 안성면 사전교차로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교통사고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했다.

무주에서 장계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25톤 덤프트럭 운전자 한모(53)씨가 가로 등 추돌 전도 되었으며, 무진장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은 트럭운전자를 구조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조치 하였으며,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연료탱크에서 경유 약10리터가 인근도로 유출되었으며, 구조대원들은 흡착포 및 오일펜스 등을 이용하여 유출된 경유를 신속히 제거하여 2차 피해를 방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 유치원생 대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교통관리계장 김덕상은 26일 경찰서 교통미니공원에서 무주군 실천면에 위치한 구천동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교통미니공원을 체험을 실시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교통미니공원 교육은 원아들의 교통안전 습관이 유년기부터 몸에 배 수 있도록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체험활동은 교통안전 학습관을 이용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 등 교통안전사항 교육, 안전한 보행방법, 순차 탑승, 무전기 사용 등이 진행됐다.

최성규 서장은 “어린이 교통교육은 우리지역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